**마2735 Note**

**◆Cross check : 시2216, 시2218, 요1923-4**

**,**

시2216.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았음이라, 사악한 자들의 회중이 나를 둘러싸았나이다. 그들이 내 손들과 내 발들을 꿰뚫었나이다.

시2218. 그들이 내 옷들을 그들 사이에서 나누고, 내 옷을 걸고 제비를 던지나이다.

Ω요1923. 그때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들이 그분의 옷들을 취해, 낱낱의 군병 몫으로 넷의 부분으로 나누고, 또한 그분의 코트(키톤:튜닉,몸 바로 위에 입는 속옷 또는 셔츠,옷)를 그리하니라, 한데 그 코트가 이음매가 없이, 위로부터 통으로 짜여 있었느니라.

요1924.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서 그들이 말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찢지 말고, 이것에 대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던지자", 이는 성구(聖句)가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말하되, "그들 사이에서 그들이 내 옷들을 나누고, 내 옷에 대해 그들이 제비를 던졌나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군병들이 행하였느니라,